

붙임2

광화문1번가 국민심사 자료 제출서식

제출기관	전라북도 전주시
제 목	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, 도시의 미래 참여와 숙의로 그린다.

□ 추진배경

- 옛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필요
-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투명한 정책 결정과 개발로 인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

□ 추진준비 및 과정

- ※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하여 **사전준비위원회 운영**
- ※ 단순 찬·반이 아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로 단일방식이 아닌 **‘시나리오워크숍 + 공론조사’ 방식 채택**



- 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
 - 인원: 7명 (갈등, 도시계획, 언론, 시의원, 시민단체2, 공무원)
-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
 - 인원: 11명 (갈등2, 도시계획2, 사회경제2, 회계, 언론, 시의원, 시민단체2)

□ 추진성과

- 시민참여단의 92%정도가 본인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도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주시가 원안 수용
 - **공론화 결과 100% 수용**하여 정책방향 결정
- 토지주 권고사항 반영하여 개발계획 수립 의사 밝힘
 -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수용으로 **공론화 결과의 활용성 증대**
- 사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 사례 적용 가능
 - 개발압력이 있는 대상지에 대한 행정과 민간의 충돌 해소